

# 라임 자산이관·투자금 배분 ‘배드뱅크’ 설립… “회수 극대화”

투자자 보호 위해 신설운용사가 관리 외부 전문인력 위주 재구성 원칙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 개념 설립추진단, 8월까지 펀드이관 목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펀드)의 자산회수와 투자자 배분을 맡을 가교운용사(라임 배드뱅크)가 설립된다. 다음달까지 설립해 오는 8월에는 펀드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투자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도 진행한다. 이미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10일 공동 출자를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협의 초기에는 기존 운



라임자산운용 전경

용사로의 이관까지 포함해 검토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설 운용사에서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합의했다”며 “라임 배드뱅크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임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별 기본 출자금 5000만원

과 그 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신설 운용사의 인력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

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라임 배드뱅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을 회수·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통상의 배드뱅크와는 달리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일종의 사모운용사 개념이다.

금감원 김동희 부원장보는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함께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을 검

사한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왑(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은 검사를 마쳤으며, 제재를 준비중이다. 은행권은 우리·신한은행(라임 등), 기업은행(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금감원 검사와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만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산은·수은 “HDC, 아시아나 인수 진정성 의문”

서면으로만 논의 진행, 한계 있어 재협상 요청에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보도자료 아닌 협상테이블 나와달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수 확정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이 지속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산은과 수은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경고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HDC현산이 공문을 통해 “산은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며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거래종결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산은과 수은은 “시장에서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은과 수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HDC현산의 논의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산은과 수은은 “HDC현산 측이 보도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인수를 확정하기 위한 제시조건은 이해관계자간 많은 협

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으로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HDC현산 측이 서면을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지는 의견에는 자칫 진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산은과 수은은 또 HDC현산이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요청에 대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은과 수은은 “요청한 재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HDC현산 측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 달라”며 “공문 발송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협상 테이블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HDC현산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Hexlant 대표. /농협은행

## NH농협은행, 특금법 공동대응 컨소시엄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헥슬란트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렸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됐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개정 특금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B손보 갑상선·전립선 검사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암 전용상품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에 탑재된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갑상선·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는 갑상선과 전립선의 질환 감별을 위해 바늘생검을 통한 조직병리 진단을 받았을 때 검사 결과 암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암이 아니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은 통상 갑상선과 전립선에 대한 초음파 등 영상 의학 검사 또는 혈액검사, 신세검진 상



질병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 가는 바늘을 체내에 삽입해 조직표본을 얻는 검사를 말한다.

이번 신규 보장 담보 개발은 예방관점의 독창성과 노력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김희주 기자 hj89@

## 한화손해보험

### 유가족 생활비까지 책임

한화손해보험은 가장의 유고 시 남은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사망 보험금은 물론 유가족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참 편한 기다리 정기보험’을 신규 출시해 1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해사망을 기본 담보로 구성한 이 상품은 가장의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애 시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과 매일 지급하는 생활자금을 탑재했다. 유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담보만 모아서 상품을 구성했다. 1종은 경증유병자의 가입편리를 위한 간편고지형으로, 2종·3종은 일반고지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김희주 기자

## 신한은행, 수수료 없는 해외결제 특화 체크카드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통해 해외이용수수료 없이 외화(USD)로 해외결제가 가능한 체인 지업 법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는 원화계좌는 물론 외화계좌를 동시에 연결해 국내 사용액은 원화계좌에서 해외 사용액은 외화계좌에서 각각 인출된다. 기존에 개인만 사용이 가능했던

체인지업 체크카드를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출시했다.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마스터카드 해외가맹점에서 국제브랜드사수수료(1%)와 해외서비스수수료(0.2%)가 면제된다.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로 결제 시 통화별 환율을 적용해 외화계좌에서 미국 달러로 결제된다. /안상미 기자